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 네,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어]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전의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붙임표 ‘-’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붙임표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접사 ‘-질’과 연결 어미 ‘-으니’가 이러한 예이다. 다만 조사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이등분선’은 ‘이’, ‘등분’, ‘선’의 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이 복합어의 표제어 ‘이등분-선’에서 붙임표는 ‘이등분’과 ‘선’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준다.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단어들은 구성 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무덤’의 접미사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접

미사에는 ‘-암’, ‘-역’, ‘-우’ 등이 있다.

‘노름’은 어근 ‘놀-’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이따가’도 어간 ‘있-’의 본뜻과 멀어졌다. 따라서 ‘노름’과 ‘이따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1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를’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 집’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논둑’과 ‘길’이 결합한 ‘논둑길’의 구성 성분이 ‘논’, ‘둑’, ‘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둑-길’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13. <보기>의 [자료]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자료]는 ‘조차’, ‘자주’, ‘차마’, ‘부터’가 쓰인 문장과 이 단어들의 어원이 되는 용언이 쓰인 문장의 쌍들이다.

[자료]

- 〔나조차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었다.
동생도 누나의 기발한 생각을 좃았다.〕
- 〔누나는 휴일에 이 책을 자주 읽었다.
동생은 늦잠 때문에 지각이 좃았다.〕
- 〔나는 차마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언니는 쏟아지는 졸음을 잘 참았다.〕
- 〔그 일은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했다.
부원 모집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었다.〕

- ① 자주, 부터
- ② 차마, 부터
- ③ 조차, 자주, 차마
- ④ 조차, 차마, 부터
- ⑤ 조차, 자주, 차마, 부터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품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실현된다. 품사가 어떻게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지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

형은 아주 옛 물건만 항상 찾곤 했다.

㉢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

친구가 내게 준 선물은 장미였다.

㉤

다람쥐 세 마리가 나무를 오른다.

- ① ㉠ : 명사가 격 조사와 결합해 목적어로 쓰였다.
- ② ㉡ :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 ③ ㉢ :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쓰였다.
- ④ ㉣ : 명사가 어미와 직접 결합해 서술어로 쓰였다.
- ⑤ ㉤ :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15.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나·랏 :말·쓰·미 中·동·國·궐·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
못·디 아·니·홀·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
져 ·흙·배 이·셔·도 못·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문·흙·노·
미 하·니·라 ·내 ·아·를 爲·왕·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
물·여·둑 字·종·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하·여·수·비 나·겨 ·
날·로 ·뿌·메 便·便·安·안·키 호·고·져 흙·썩·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
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
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말·쓰·미’와 ‘:흙·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 ② ‘하·니·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 ③ ‘:아·를’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 ④ ‘:하·여’와 ‘便·便·安·안·키 호·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뿌·메’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쁘다’가 쓰였군.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빈칸 문제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먼저 생각하고 선지를 보자.

— <보 기> —

선생님 :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 네,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다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가 ‘-아’랑 결합해서 [와]로 발음될 때 ‘오-’가 ‘w’로 교체된다고 한다. 그럼 <오- + -아 = w + -아 = 와 = wt>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은 w가 아니라 j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j+-아/어=야/여]로 발음되는 예를 찾아야 할 것이다.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잡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잡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위라]

✓ 일단 ②③⑤는 [야/여] 발음 소리가 안 나므로 제외다. 남은 건 ①④다. 하나씩 따져보자.

- ① : 뛰- + -어 = 뛰 + j + -아 = 뛰 + 여
- ①은 교체된 음운 없이 새로운 음운 j가 첨가됐다.
- ④ : 디- + -어 = 더 = ㄷ + j + -아 = 더
- ④는 (<보기>에서 ‘그’가 ‘w’로 교체된 것처럼) ‘j’가 ‘j’로 교체됐다.

✓ 반모음 교체나 축약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보기>의 정보를 얼마나 깔끔하게 독해하냐가 중요하다. ‘그가 w가 되어서 과발음이 나는구나.’ 만 캐치했어도, ‘어떤 음운이 j가 되어야/여 발음이 나는 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었다. 지식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자.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전의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불임표 ‘-’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불임표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문은 불임표 ‘-’가 쓰인 경우vs안 쓰인 경우를 대비할 것이다. 이 기준을 핵심 정보로 인식하자. (대비되는 기준은 언제나 나

핵심 정보 + (첫문단에서) 예고되는 흐름은 언제나 핵심 정보)

표제어에 불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불임표가 쓰인다. 접사 ‘-질’과 연결 어미 ‘-으니’가 이러한 예이다. 다만 조사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불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불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 접사와 어미에 대한 이야기다. (접사는 어근이 입는 옷, 어미는 어간이 입는 옷인 건 모두 알고 가자.) 이들이 결합할 때 모두 불임표가 붙는단다. 불임표의 기준이므로 머릿속에 박자.

✓ ‘다만’과 같은 예외는 돌아와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놓자. 조사는 불임표가 없단다.

둘째,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불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이등분선’은 ‘이’, ‘등분’, ‘선’의 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이 복합어의 표제어 ‘이등분선’에서 불임표는 ‘이등분’과 ‘선’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어의 불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준다.

✓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 사이에 불임표가 붙는단다. 역시 불임표의 기준이므로 핵심 정보이다. 이등분선의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불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단어들은 구성 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불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 결합한 경우에도 그걸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불임표가 쓰이지 않는단다. 역시 불임표의 기준이므로 머릿속에 박아두자.

‘무덤’의 접미사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불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접미사에는 ‘-암’, ‘-역’, ‘-우’ 등이 있다.

✓ ‘-엄’이라는 접미사는 없으므로 ‘무덤’은 ‘묻-’과 ‘-엄’으로 분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불임표가 없다.

‘노름’은 어근 ‘놀-’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이따가’도 어간 ‘있-’의 본뜻과 멀어졌다.

따라서 '노름'과 '이따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 '노름'이나 '이따가'도 원래의 형태인 '놀음'이나 '있다가'랑 뜻이 너무 다르니 분해할 수 없다. 따라서 붙임표를 안 붙인다.

핵심 정보 정리

붙임표를 붙이는 기준

- ① 접사나 어미
- ② 마지막 구성성분이 붙는 부분
- ③ 구성성분 분해 불가능하면 붙임표 안 붙임.

12.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을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잘 모르겠다. (사실 배경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함)

②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의 뜻을 표제어 '를'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잘 모르겠다. (사실 배경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함)

③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을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잘 모르겠다. (사실 배경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함)

④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 집'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잘 모르겠다. (사실 배경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함)

⑤ '논둑'과 '길'이 결합한 '논둑길'의 구성 성분이 '논', '둑', '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둑-길'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핵심 정보를 보자. 마지막 구성성분이 붙는 부분에 붙임표를 쓴다고 했다. '논둑-길'이든 '논-둑길'이든 둘 중 하나여야 한다. 핵심 정보를 토대로 보면 아무튼 '논-둑-길'은 아니다. (논둑-길이 맞다)

✓ ①②③④은 기초 상식이다. 그러나 몰랐다 해도 핵심 정보를 토대로 ⑤를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

13. <보기>의 [자료]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은 '단어의 의미가 본뜻과 떨어진 경우'이다. 그럼 당연히 '의미상 차이'를 생각하며 자료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 주위를 보면 없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무덤과 같이 현대에 없는 접사가 결합한 경우는 ㉠과 다르다. 부분을 짚는 문제는 그 주위 맥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보 기>

[자료]는 '조차', '자주', '차마', '부터'가 쓰인 문장과 이 단어들의 어원이 되는 용언이 쓰인 문장의 쌍들이다.

[자료]

나조차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었다.
동생도 누나의 기발한 생각을 좃았다.
누나는 휴일에 이 책을 자주 읽었다.
동생은 늦잠 때문에 지각이 좃았다.
나는 차마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언니는 쏟아지는 줄음을 잘 참았다.
그 일은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했다.
부원 모집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었다.

✓ '조차'와 '좃았다'는 뜻이 매우 다르다. '부터'와 '붙었다'도 뜻이 매우 다르다.

✓ '차마'와 '참았다'는.. '차마'의 뜻을 생각해보자. '참다'의 의미가 있는가? 없는 것 같다. 지문에서는 '노름'과 '놀-'도 의미상 차이가 있다 했는데 이 정도는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 '자주'와 '좃았다'는.. '자주'는 '잣게'의 뜻이랑 거의 완전 똑같다. 그럼 뭘까? '자주'는 '무덤'과 비슷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즉, '좃우'의 '-우'는 현대에 없는 접미사인 것이다. ㉠이 아니다.

① 자주, 부터

② 차마, 부터

③ 조차, 자주, 차마

④ 조차, 차마, 부터

⑤ 조차, 자주, 차마, 부터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품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실현된다. 품사가 어떻게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지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 ㉠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 ㉡ 형은 아주 옛 물건만 항상 찾곤 했다.
- ㉢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 ㉣ 친구가 내게 준 선물은 장미였다.
- ㉤ 다람쥐 세 마리가 나무를 오른다.

① ㉠ : 명사가 격 조사와 결합해 목적어로 쓰였다.
✓ 주어다.

② ㉡ :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 ‘아주’는 ‘옛’을 꾸며주고 있다.

③ ㉢ :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쓰였다.
✓ 되는 대상, 아닌 대상은 보어다.

④ ㉣ : 명사가 어미와 직접 결합해 서술어로 쓰였다.
✓ 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랑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⑤ ㉤ :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 수 관형사이다. (‘셋’이 수사)

✓ 이거 틀렸으면 문법 기본 개념을 안 봐도 너무 안 본거다.
당장 수특 사서 기본 개념이라도 확실히 잡자.

15.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나·랏 :말·쌍·미 中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
못·디 아·니·힐·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
져 ·홍·배 이·셔·도 ㅁ·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물·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덥 字·종·를 鳴·7·노·니 :사·람·마·다 :히·여·수·비 니·
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의 히·고·져 홍 썩·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① ‘말·쌍·미’와 ‘홍·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 잘 모르겠다.

② ‘하·니·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 ‘:물·홍·노·미 하·니·라 = 못하는 사람이 많다’이다. 많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므로 ‘하·니·라’의 품사 역시 형용사일 것이다. 고전 문법 풀 때는 제발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생각한 다음, 이를 고전어에 적용시키도록 하자.

③ ‘:이·를’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 모르겠다.

④ ‘:히·여’와 ‘便·便·安·안·의 히·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 ‘:사·람·마·다 :히·여 =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이다. 피동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니다.

⑤ ‘:뿌·메’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쁘다’가 쓰였군.
✓ ‘:날·로 ·뿌·메 便·便·安·안·의 히·고·져 =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이다. ‘:뿌·메=쓰는 데’이므로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선지는 잘 모르지만, ⑤로 답 결정이 가능하다.

✓ 고전 문법 문제는 반드시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고전어를 바라봐야 한다. 고전어 자체를 분석하려 들면 끝이 없다.